사회=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양혜령

김준원

이호준

홍인화

정기섭

문병채

정치

평등선거 어긋난 후보 기호제 대신 추첨제 도입을

/주제발표/ '한국정치 문제점과 해결방안' 양혜령 양치과의원 원장

국내 정치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정당의 지역독점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당의 독과점 체제가 바로 문제다. 그렇다 보니 지역 분열이 고착화하고 여기에 따른 '묻지마 투표'도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기호제 폐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선거 기호제는 현재 선거 시 거대정당 순으로 1번부터 차례로 후보가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에 비해 프리미엄을 누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후보자 별로 번호를 부여받고 투표용지에도 기재되는데 과도한 특권이다. 평등선거에도 어긋난다.

미국이나 독일 등 정치 선진국의 경우 이미 기호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를 도입하거나 추첨으로 정해진 순서도 선거구별로 순환제를 적용하는 등 기호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호제에 익숙한 국민 여론으로 인해 폐지와 관련한 동감을 끌어내지 못한데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기성 정치권의 묵시적 동조로 인해 후진적인 정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 정당 후보는 앞자리 기호 덕분에 과도한 특권을 갖는 반면,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후보는 평등한 선거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마저 기호제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잘못됐다. 기호제는 지역주의를 더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밖에 없다. 기호제가 폐지되면 지역을 분열시키는 단점들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선 알파벳 순으로 출마자를 배열했지만 현재는 이 부분도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있다. 이런 선진제도를 많이 도입해야 한다.

소수정당의 정치인들이 기호제 폐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수차례 기각당했다. 사실 정치 개혁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국내 정치인들은 더 큰 틀의 상황을 보지 않고, 정국 현안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해마다 논란이 돼 온 정당공천제도 없어져야 한다. 60%가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하는 데 지켜볼 부분이다.

/지정토론/

유권자들 꾸준한 관심이 정치개혁 끌어내

김준원 홍보산업 총괄 전무이사

기호 순번제의 경우 한 월간지의 커버스토리로 게재될 만큼, 현 국내 정치상황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 년안에 바뀌긴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당선 전과 당선 후가 다르다'는 것이다. 스스로 후보자 시절엔 국회에 입성하면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입성 후에는 '벙어리'가 되고 만다.

특혜 축소를 외치면서도 200여가지의 특혜 가운데 단 1개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계산을 해보니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포함, 연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치 개혁은 단 기간에 이룰 수 없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라도 계속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유권자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말 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 목소리 반영할 중선거구제 도입할때

이호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해결책에 대해 말하자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장점은 정치 신입의 진입이 용이하거나 능력 위주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고, 단점은 후보자 난립 또는 지역 토착세력과의 밀착 가능성 등이 있다.

해결책과 관련해 기호 순번제 대신 기호 추첨제가 선거비용 절감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모든 문제점을 단 시간에 바꾸긴 어렵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방선거부터라도 빨리 도입돼야 한다.

오늘 발제가 '광주전남의 발전을 찾자'이기 때문에 호남 정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주장하자면 호남 지역은 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낙후지역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후계자 양성에 소홀했고, 여당 성향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지역 인재 육성에도 어려움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권력 배분과 인재 배분, 재원 배분에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인물 키우기 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발전 가능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대통령감이 될 만한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 그 전엔 현재의 낙후성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호남 거점도시 위상 찾아야

/주제발표/ '광주경제, 2·3차 산업 중심으로' 홍인화 광주시의원

광주의 3대 주력산업은 가전과 자동차, 광산업이다. 이제까지 이런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광주 경제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3차 산업을 바라볼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다.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광산업은 광주에서 씨앗을 뿌리고 거두기 시작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동차와 가전은 기존의 산업, 즉 나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열매는 열리는 데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진 못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려면 주력산업과 더불어서 시장 선순환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주력인 제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말이다.

최근 광주는 이런 제조업을 바탕으로 생산도시로 변모했다. 예전 소비도시 이미지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생산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수출액이 부산을 앞서는 수출도시로 바뀌었다. 비슷한 규모의 대구나 대전과 비교해도 제조업 비중이 광주가 높다.

그렇지만 생산도시로 변모한 광주가 호남의 거점도시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

광주는 호남의 거점도시 역할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선 광주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이다. 대구나 대전 등 경쟁도시의 경우 서비스산업에 대해 일찌감치 투자했다.

도시의 원래 기능은 주변 지역에 '도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광주가 '저부가가치 소비도시'였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통해 거점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금융과 의료, 교육, 문화, 유통, 교육, 숙박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것이 광주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산업별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하고,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 추진도 뒤따라야 한다. 호남의 중소도시가 전문점의 모습을 띤다면 광주는 모든 산업 분야를 갖춘 '백화점식'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정토론/

광주 비싼 공장 부지 외지기업 유치 걸림돌

정기섭 고운하이츠 회장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광주가 호남의 거점도시 위치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동의하는 바다.

광주지역 경제 발전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광주 제조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기아자동차다. 기아차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광주 경제에서는 중요하다.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육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기아차의 경우 틀을 갖췄다. 확충만 해도 광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도 가능해 질 것이다. 기아차 노사와 시민사회와의 대타협만 이뤄지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외지 업체를 끌어오기 위해 공장 용지의 가격을 낮추는 지원책도 필요하다. 최근 분양한 진곡산단의 경우 3.3㎡당 90만원대였다. 어느 업체가 이런 비싼 땅에 입주하겠는가. 우려스럽다. 광주에 진출하는 수도권 업체의 경우 비싼 현지 땅을 팔고, 싼 지방 부지에 입주해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광주의 공장 용지가 이렇게 비싸다면 업체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교육·문화 분야만 집중 육성해야

문병채 국토정보기술단 단장

광주의 주력산업을 가전과 자동차, 광산업으로 나눴는데, 현재 광주는 이를 나무로 생각해서 이식해 놓았다고 보면 된다. 이 나무들이 생존하려면 생태계가 조성돼야 하고,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이 있어야 한다.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연결고리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해결한다면 광주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본다. 심도있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광주가 만년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데는 동감한다. 거점도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구기 위해선 현재로선 부족하다. '백화점식' 집중을 주장했는데, 예산 등 한계도 분명하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이나 숙박, 유통은 광주에서 발전시키기 어렵다. 의료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

전남지역의 경우 1차 산업이 중심인 것을 감안하면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1~3차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농촌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